

대부분의 “우연들”은 가능하지 않은 일과는 전혀 다르다.

<확률게임, 발터크래머 지음, 권세훈 옮김, 이지북, 2002년 3월>

우연은 극히 가능하지 않은 사건이다. 우선 이러한 일반적인 시각에 동조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1988년 8월8일 뮌헨의 야외 수영장이 888888번째의 입장객을 맞게 된다면 이것은 우연이며 신문의 기삿거리가 된다. 더구나 그 입장객이 8세 혹은 88세이거나 아흐테발터 슈트라세 18번지에 산다면 우연의 정도는 더 커진다.

그러한 우연적 사건은 우리들에게 매우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일어난다. 프랑스 사람인 C. 플라마리옹이 보고한 우연적 사건은 다음과 같다. 드삼씨는 어릴 때 드 풍지부씨에게서 플럼푸딩을 받은 적이 있다. 10년 후 파리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플럼푸딩을 본 드삼씨는 한 조각을 주문한다. 그러나 그 푸딩은 다른 누구도 아닌 풍지부씨로부터 이미 주문받은 것이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 플럼푸딩을 먹는 자리에 초대받아 간 드삼 풍지부씨를 기억에 떠올린다. 조금 뒤 문이 열리며 우물쭈물하며 들어오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풍지부씨였다. 그는 주소를 잘못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이 집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다.(C.G. 융).

조지 D. 브라이송이라는 이름의 어떤 남자는 켄터키 주 루이스 빌에 있는 호텔에 투숙한다. 자신의 방인 307호실에 들어간 그는 수신인이 '조지 D. 브라이송, 307호실'로 되어 있는 편지를 발견한다. 당황한 그는 안내실로 가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물어본다. 그 누구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뿐더러 방 번호는 더욱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원래의 편지 수신인은 몬트리얼에서 온 조지 D. 브라이송으로서 그 방에 투숙했다가 금방 떠났다는 사실이 밝혀진다(A.K. 듀드니).

서로 친척이나 사돈 관계가 아닌 두 명의 병사가 똑같은 야전병원으로 이송되어 온다. 똑같이 19세인 이 두 사람은 폐렴을 앓고 있으며 슬레지엔 출신이다. 또한 자원병으로서 수송중대 소속이고 이름이 프란츠 리히터인 점도 똑같다(파울 카머러).

체코에서 독일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되는 두 아이의 엄마 야니타는 프라하의 친구 에바에게 전화를 건다. 재혼한 에바는 세 아이의 엄마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10분 가량 진행된 다음에서야 야니타는 전화번호를 잘못 돌리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품게 된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실제로 이름이 에바이며 세 아이의 엄마에다가 재혼했을 뿐만 아니라, 야니타라는 그녀 친구는 얼마 전에 두 아이를 데리고 독일로 이주했다(이것은 내

제자이기도 한 야니타의 딸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다).

이러한 우연적 사건들은 언제 들어도 우리를 놀라게 하고 즐겁게 만든다. 이것들은 흔히 숫자, 이름, 개념 등이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갑자기 다시 보게 되는 물건과 관련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카를 추크마이어는 오스트리아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 잘츠부르크 부근의 카를 마이어 별장에서 처음으로 접했던, 손으로 그린 벽걸이용 장식품을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미국의 어떤 지식인의 빌라에서 다시 발견한다. 그의 『그것이 마치 나의 일부인 것처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점령당한 오스트리아를 빠져나온지 한참 뒤에 저쪽 미국에서 버몬트의 농장과 숲의 고독에 빠져 있던 나를 친구들이 불러내 어떤 미국 작가를 만나게 해주었다. 그는 자동차로 몇 시간 걸리는 뉴잉글랜드의 시골에 거주하고 있었다.” 집을 둘러본 후 추크마이어의 재촉에 못 이겨 집주인은 난방이 부실하여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정원에 딸린 방을 보여 주었다. 그 방의 벽에는 잘츠부르크에서 본 장식품이 “마치 카를 마이어가 방금 마지막 손질을 한 것처럼” 단정하게 걸려 있었다.

“이것이 예전부터 여기에 있었나요?”라고 질문한 추크마이어는 이 장식품이 전 세계에 세 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다. “이것은 유럽으로 팔려나갔고 몇 년 후 미술품 중개상에 의해 미국에 되팔렸다. 그전에 이것은 오스트리아에 있었다.”

“이 사건은 카를 마이어가 헨도르프에서 사망한 때와 비슷한 시간에 일어났다”고 추크마이어는 쓰고 있다. “나는 마치 이전에 정원에 딸린 방에 있던 그를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떤 사물을 예기치 않은 순간에 재발견하게 되는 사건들을 이 단원에서 여러번 다루고자 한다. 몇 가지 실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귀향한 어떤 미국 병사는 브루클린의 해변에서 바다로부터 떠밀려 온 세탁용 솜을 발견한다.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닌 이것은 수년 전 프랑스의 대서양 연안에서 독일 잠수함의 공격으로 인해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수송선이 가라앉을 때 잃어버린 자신의 물건이었다(P. G. 크린). 슈바르츠발트 지방의 어떤 어머니는 네 살 난 아들의 사진을 찍는다. 그녀는 그 필름을 스트라스부르로 가지고 가서 현상을 맡긴다. 그때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그녀는 필름을 찾지 못한다. 2년 후 그녀는 새로 태어난 딸의 사진을 찍기 위해 프랑크푸르트에서 필름을 산다. 하지만 그 필름은 이중으로 인화된 것으로 밝혀진다. 첫 번째 사진에는 다름아닌 2년 전에 찍은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스트라스부르 사진관에서 잊어버리고 현상하지 않은 필름이 누군가의 실수로 다시 상점에 나와 팔리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C. G. 융). 북해를 항해하던 어떤 사람은 뱃멀미로 인해 먹은 음식물을 토하는 와중에 틀니를 바다에 빠트린다. 몇 달 후 그는 대구의 뱃속에서 자신의 틀니를 다시 발견하여 언론의 화제가 된다(이 사건은 1994년 말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다). 벼룩시장에서 “이 물건을 습득하면 XY에게 돌려 주세요”라는 글씨가 적힌 담배통을 산 사람은 바로 XY의 조카이다. 위에서 열거한 우연들과 비슷한 경험을 한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게르하르트 프라우제와 토마스 폰 란도브의 저서 『과학에서의 악마』에서 “승수를 가진 두 정수의 합을 승수를 가진 또 다른 정수로 나타낼 때 그 승수는 모두 2보다 큰 자연수여야 한다”는 페르마의 유명한 명제에 관한 내용을 읽었다. 이 명제는 수백 년 동안 증명되지 않고 논란을 거듭해 왔으나 이 책에서 과학에서의 오류에 대한 예로서 거론되었다. 이 책을 읽은 날에 펼쳐 본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수학의 수수께끼가 이제 풀렸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들은 널리 알려진 수학의 수수께끼가 풀렸다는 점에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러 세대 동안 수학 전문가와 아마추어 수학자들이 실패하고 말았지만 영국사람 와일즈가 페르마의 명제를 증명해 보였다.”

이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우연에 대해 오래 생각 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우연적 사건들의 이면에서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을 발견한다. 가령 추크마이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잘츠부르크에 있는 카를마이어의 안부를 전했다고 믿는 듯이 보인다. “무언인가에 의해 이끌린 순간 나는 벽 장식품이 걸리 그 방을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종류의 우연적 사건들을 수집한 생물학자 파울 카머러는 우연 뒤에는 “반복을 일으키는 대상들이 지닌 관성의 법칙을 표현”인 ‘연속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상정했다. 심리학자 C. G. 융은 “두 가지의 상이한 심리적 상태들의 동시성”을 주장했다. 쇼펜하우어는 우연을 “인과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의 동시성”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 개념을 상이한 운명들 사이의 비가시적인 횡적 관계를 통하여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따라서 두 가지 종류의 맥락으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는 주관적인 맥락이다. 이것은 사건을 체험하는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며 자기 자신의 꿈과 같이 주관적이다…….”

이 자리에서 이러한 이론들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 이론들이 삶의 진실을 올바르게 혹은 틀리게 기술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이 삶

의 진실을 올바르게 혹은 틀리게 기술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이 단순한 망상 혹은 세계 인식을 위한 진정한 진보인지 관한 판단은 일단 접어 두기로 하자. 우리의 목적에 중요한 것은 다만 이러한 이론들이 개연성이 없는 사건들을 설명하는 데 필요치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열거한 사건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보다는 훨씬 덜 이상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이상한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향이나 “상이한 운명들 사이의 횡적 관계” 혹은 “상이한 심리적 상태들의 동시성”을 들먹이지 않고서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가령 카머러는 누군가의 전차에서 자신의 극장표와 똑같은 변화가 적힌 전차표를 받고 같은 날에 집에서 이 번호와 똑같은 전화번호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심지어 그러한 경우를 기대하기까지 한다. 물론 나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매우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누구에게 언젠가 일어난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카머러가 기술한 바와 같이 리히터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만날 확률은 극히 낮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어느 야전병원에 들어온 어떤 두 부상병의 병명, 성, 나이가 같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 모든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과는 다르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가능하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은 어제 나 자신이 경험한 사건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자. 내가 대학에서 귀가했을 때 아내는 “UFO의 존재를 믿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부엌 전등에 달린 백열전구가 타버린 지 얼마 안 되어 복도의 전등도 나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내가 계단의 전등을 켜자 그것마저 망가져 버렸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이 단원의 초안을 읽은 후 그녀는 이 사건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자 갑자기 식탁의 전등이 나가 버렸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우연히 대문 쪽을 바라보았을 때 외등마저 타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UFO의 침입?

책상, 차고, 침실, 목욕탕을 비롯하여 우리 집에서는 대략 30개의 백열전구가 사용된다. 어느 날 갑자기 5개 혹은 그 이상의 전구가 타버린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백열전구의 평균 수명을 1년으로 가정할 때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은 1000분의 1이다(이것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나는 언젠가 따로 떨어져 있는 30개의 백열전구가 어느 날 갑자기 타버릴 확률은 각각 700분

의 1이라고 계산해 본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느 날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훨씬 높다. 우리가 이 집에 이사온 지 9년이 지난 지금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은 3%이다. 따라서 아내와 내가 “이제 전구를 바꿀 때가 되었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귀신이나 UFO를 들먹거릴 만한 사건은 아니다(물론 백열전구들이 과부하로 인해 한꺼번에 타 버렸다고 설명하면 더 좋을 것이다.)

브라이송 씨의 체험조차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성과 이름이 모두 같은 미국인이 평균적으로 10명이며, 1년에 미국의 모든 호텔 방의 주인이 2000만 번 바뀐다고 가정할 때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연이어 같은 방에 투숙할 확률은 2000만분의 1이다. 그러나 1년에 방 주인이 2000만 번 바뀔 때 이름의 빈도와 관련한 특정한 전제조건을 계산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일어날 확률은 60%이상으로 상승한다. 더구나 여러 해 동안이라는 시간적 요소를 감안하면 우리는 그러한 ‘우연적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와 마찬가지로 독자도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된 사람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 확률은 1400만분의 1이다.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누군가에게 항상 일어난다. 거의 매주 주말에 누군가는 1등에 당첨된다. 다시 말해서 극히 드문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확실히 일어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확률에 관한 가장 빈번한 잘못된 상식들 중 하나, 즉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그것은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다”를 감지하게 된다. 그 대신에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와 “그것이 누군가에게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라고 질문해야 한다. 첫 번째 확률은 일반 적으로 낮다. 그런 까닭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깜짝 놀라는 것도 당연하다. 이와는 반대로 두 번째 확률은 우리가 복권의 1등 당첨처럼 불확실한 사건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훨씬 높다.  
<끝>

<확률게임, 발터크래머 지음, 권세훈 옮김, 이지북, 2002년 3월>